

대구주보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2014. 12. 14. (나해) 제1921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_053)250-3048~9_ <http://www.daegujubo.or.kr>



한티영성관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요한 1,6-8.19-28 참조)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사람, 하느님의 영을 받아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그 사람은 또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크리스마 성유로 축성되었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것입니다.

제1독서 이사 61,1-27.10-11 **제2독서** 1테살 5,16-24 **복 음** 요한 1,6-8.19-28

입 당 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화 답 송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박영봉 안드레아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오늘은 대림 제3주일로 교회는 이날을 기쁨 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독서들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은 기뻐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돈이라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기뻐하겠는데...”, “내 몸이 건강해지면 기뻐하겠는데...”, “우리 아들이 그럴듯한 곳에 취직만 되어도 행복하겠는데...”, “우리 노처녀 딸이 시집이나 가면 기뻐하겠는데...” 그런데 모두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이 하느님의 도구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요한은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요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와 계신다고 알려주었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왔지만, 내로라하던 종교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유에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세례자 요한과 같은 겸손을 지닌다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큰 은총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하느님께서 주셨고 나의 노력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셨다는 하느님 자녀다운 생각을 지닐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을 원하는 분은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기쁨 주일인 오늘을 자선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면서 성탄을 맞이한다면 먼저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믿지 않는 이웃들도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기쁨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31회 자선주일 담화문(요약)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한국 천주교회는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제정하여 모든 교우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참된 기다림을 준비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구세주 오심이 그리하듯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며, 모든 교우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 생명에 참여시키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층은 약 4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은 가구의 월수입이 정부가 설정한 2014년 3인 가구 기준 132만 원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웃들입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국가나 정부의 몫으로만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마태 22,34-40 참조).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선하심을 증명해 주는 하느님의 행위를 본받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카 10,29)라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루카 10,36)라고 되물으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율법교사의 답변처럼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루카 10,37). 그러므로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

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 14,16)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 실천입니다. “가난은 나라남도 못 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나눔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대한 빈곤 앞에 우리의 나눔 실천은 보잘것없는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물 한 방울이 거기에 없다면 대양은 그 물 한 방울 만큼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크기나 숫자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마더 테레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결단이며 하늘에 보화를 쌓는 희생입니다. “저는 아무런 희생도 따르지 않고 아픔도 없는 자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교황 프란치스코) 이웃 사랑의 나눔 실천은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2코린 8,9 참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를 보내는 회개와 보속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풍요로운 대림 시기를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12월 14일 자선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주교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안데스 산맥을 누비는 선교의 발걸음

페루 헤수스 마을에서 석 아폴로니아 수녀가
조환길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



멀리서 마음으로 드립니다.

리마에서 약 16시간 밤 버스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오르내리면 카하마르카라는 산골 도시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버스로 약 사오십분을 계곡 끝자락으로 내려오면 제가 살고 있는 헤수스(Jesus)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새로운 소임지인 이곳에 올 4월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산골이어서 참 좋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아주 잘 대해주고요. 물론 이 곳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착착 일을 처리하지는 않기에 속이 터진 적이 많았지만 이 또한 선교사답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고마운 분들이지요.

이곳에 오게 된 경위와 우리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까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 저 보다 먼저 여기에 오셔서 두 팔 벌리고 계셨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맞아주시고 본당에 딸린 수녀원에 살게 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 숨 쉬고 움직이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안에서 사랑의 일치로 함께 하며 인사드립니다. 조 대주교님, 축일 축하를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분께서 저와 우리 수녀들을 통해 당신의 선교 사업을 하시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스페인 말 덕분에 어지간히 알아듣고 소통하고 있고요.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야 하니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조차 없지만 그래도 아주 행복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1970~80년대 같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닙니다.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모습! 하느님께서 헛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무지 감사한 것이, 이곳의 알칼데(읍장)께서 저희를 환대하셔서 집 고치는 것도 읍에서 돈을 지불해주시고 인터넷도 읍사무소에서 쓰는 회선을 우리 수녀원까지 연결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답니다. 물론 주간의 낮에만 가능하지만요... 이것이 어덯니까? 거의 6개월을 인터넷 없이, TV도 없이 문맹으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주교님, 매일 미사 중에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와 우리 주교...” 이 대목에서 꼭 대주교님 기억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영육 간 건강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청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안데스 산길을 타박타박 걷는 나그네
석 아폴로니아 수녀 드림

빵 속에 든 금화 한 닢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돈 많은 노인 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동네 어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매번 빵을 한 개씩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는 빵을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여자아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언제나 맨 끝에 섰습니다. 자연히 그 아이에게 돌아가는 빵은 항상 제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더 큰 빵을 차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에게 빵을 나누어 준 노인 부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도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제일 작은 빵을 차지하면서도 언제나 깎듯하게

그 노인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여자아이에게 돌아온 빵은 유난히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 부부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아이는 빵을 먹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빵 속에 금화 한 닢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의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궤본**



금주의 성인

12월 14일	성 니카시오(주교, 순교자, 랭스, 407년), 성 베난시오 포르투나토(순교자, 535-605년경) 성 스피리디온(주교, 증거자, 테르미투스, 348년), 성 헤론(순교자, 250년) 십자가의 성 요한(신비가, 교회학자, 1542-1591년)
12월 15일	성녀 마리아 크로치피사 디 로사(설립자, 1831-1855년), 성 막시미노(수도원장, 520년) 성 바오로(은수자, 라트로스, 956년), 성 발레리아노(주교, 증거자, 457년)
12월 16일	성 나발리스(순교자, 305년), 복자 세바스티아노 마기(수사, 브레시아, 1496년) 성녀 아텔라이드(황후, 931-999년), 성 아도(주교, 비엔, 875년)
12월 17일	성녀 베가(과부, 수녀원장, 693년), 성녀 비비나(동정녀, 브뤼셀, 1170년) 성 스트루미오(수도원장, 풀다, 779년), 성녀 올림피아(과부, 여부제, 366-408년)
12월 18일	성 비네발드(선교사, 수도원장, 하이덴하임, 761년), 성 빅투로(순교자) 성 플란난(주교, 킬렐루, 7세기경)
12월 19일	성 다리오(순교자), 성 아나스타시오 1세(교황, 401년) 복자 우르바노 5세(교황, 1310-1370년), 성 신디미오(순교자, 니코메디아, 303년) 성녀 파우스타(부인, 시르미움, 3세기)
12월 20일	성 도미니코(수도원장, 실로스, 1073년), 성 암몬(군인, 순교자, 250년) 성 필로고니오(주교, 안티오키아, 324년)

■ 제1회 가톨릭영화제 대구 순회상영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2월 5일(금) 오후 7시 앞산 밑 북카페에서 열린 제1회 가톨릭영화제 대구 순회상영전에 참석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예수성심시녀회 종신서약미사



대주교님께서는 12월 8일(월) 오전 10시 예수성심시녀회 성당에서 종신서약미사를 봉헌하셨다. 이날 4명의 수녀님들이 종신서약을 하였다.

대구대교구민을 위한 신앙생활의 든든한 동반자!

2015년 신앙다이어리 판매

신앙다이어리를 교구청 문화홍보실 외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딸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꼴라타 성물방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가 : 10,000원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6~9

※ 예약주문시 방문으로 신청하신 분은 교구청 문화홍보실에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인식의 차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15일(월) 10:30 범어성당	7월 16일(화) 14:00 신암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2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12월 17일(수) 10:00 죽도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5일(월) 11:00 죽도성당	12월 17일(수) 14:00 토마스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5일(월) 11:00 한티순교자성당	12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17일(수) 10:00 평화성당	12월 20일(토) 11:00 성모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미바회 월례미사	

성소 | 피정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15차 MR: 12.20(토)~21(일)
327차: 1.9(금)~11(일)
328차: 1.23(금)~25(일)
장소: 한티 / 문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수원생빈센트드벨자비하의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2.21(일) 14:00, 수원 본원
문의: (010)8833-8107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2.19(금)~21(일)
장소: 성심교육관,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명자 카타리나, (010)4515-1114

성탄 구유순례 피정

기간: 12.24(수) 20:00~25(금) 15: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미혼 여성 누구나
신청: (010)2649-2045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16(금) 13:00~18(일) 16:00
대상: 성령 받고 싶은 젊은이
문의: (010)5490-5345

교육 | 모집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앞 20:30
수성구청 21:20
문의: 차량 김영옥, (010)5529-3186

2015년 맨발 가르멜 재속회원 모집

모집기간: 12.31(수)까지
첫째 주 주일탐: (010)2686-3282
첫째 주 월요일탐: (010)5590-2473
넷째 주 주일탐: (010)2518-4008
넷째 주 월요일탐: (010)8594-2655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 및 해외봉사

대학생: 1차 1.3 / 2차 2.28(8주 이상)
초·중·고캠프: 1.2~1.30(4주) 선착순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활동, 체험활동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015년 해외선교사를 위한 교육

21차: 1.19(월)~2.13(금)
대상: 해외 파견 명령을 받은 선교사
주최: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문의: (02)953-0613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

과정: 신구약성경 입문(2년)
방법: 우편과 이러닝학습(동영상 강의)
원서: <http://uus.pauline.or.kr>
접수: 1.31(토)까지/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4/0840~2(이러닝)

2015 목포가톨릭대 정시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원서접수: 12.19(금)~24(수)
모집: '가'군 간호학과 20명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입학처: (061)280-5102,8

제45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모집

초·중·고: 1.6~2.18(3.5.6주 선택)
※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수업
대·일반: 1.4~2.15(6주 or 장기)
주관: 마 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시엔티, (02)3446-4253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모집

만15~23세 남자, 1년기계가공조립과정, 00명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교육비/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검반
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면접전형
문의: (02)828-3600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매월 불입액이 없는
가톨릭상조
220만, 270만 상품중 선택
24시간 상담전화 1577-3182
장례대행/장지분양/모지이장/모지조성
장례부장 서정철(라파엘) 010-7799-7836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야뇨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겨울방학 특집 가족캠프"
일본 성지순례 & 문화탐방
나가사키, 운젠, 구마모토, 아소 (4일)
※ 출발일 - 1월 5일, 28일
T. (053)253-3399
조 힐 레(유스티노)
(주)성지여행 흥 미 회(안젤라)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 석 (요셉)

대구웨딩몰
www.dgweddingmall.com
• 대구 최대규모 웨딩박람회 전시장
• 대구 전지역 예약장 상담 및 혜택
• 웨딩드레스, 스튜디오 할인
• 혼수 할인
매월 착한 대구웨딩박람회 개최
문의 053-425-8216 최창열 바실리모 010-9687-0500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불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행사 | 모임

12월 예비신학생 방학미사

일시: 12.21(일) 14:00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성북성당 본당설립 25주년 기념 사업기금 마련 잠비천 판매 종료

본당 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사와 비천 전시회

기간: 12.17(수) 16:00~30(화)

장소: 매일신문사 1층

내용: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예술적 만남
주최: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원

12월 가나 강좌

일시: 12.21(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2.15(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제3회 YHY해외봉사활동

기간: 15.2.9(월)~17(화) 8박 9일

장소: 필리핀 마닐라일대 / 경비: 약170만 원
주관: 교구 청소년국, 250-3037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2.14(일) 15:00, 회비: 1만 원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음악원, 255-4847

천주교 택시기사 선교사 모집

자격: 선교열정있는 착한 교우 / 일타가 교회다
범위: 대구대교구 내 신자 / 선교자료: 무료
신청: 직접 지도신부와 면담
장소: 대구 계산문화관 3층
주관: (사)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초크아트, POP, 톨페인팅
(성인 및 어린이)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교구 소람상담소 파트타임 조교 채용

근무: 매주 월~금, 14:00~18:00(6개월이상)
자격: 상담관련 공부 경험있는 미혼 신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제출: kim-sinbu@hanmail.net(12.19까지)
문의: 소람상담소, 250-3111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지원자격: 35세 이상 미혼 여성
4년제 대학졸업자 중 가톨릭신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거주, 2년 계약

문의: 859-4063~4 / 마감: 12.31(수)
상세: <http://dormitory.cu.ac.kr>

삼덕유치원 정교사 채용

정교사 2명: 유치원2급 정교사 소지자
또는 경력자(몬테소리과정 이수자)
문의: (010)5446-1416

요한바오로2세 어린이집 채용

모집: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1명
회계 사무직원 1명
근무: 월~금
문의: 627-4006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정재환(프란치스코), 이유진(세실리아)

2015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 일자: 8월
문의: 문화홍보실, 250-3048~9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골 동 품
고가 매입
문송갤러리 김 대 운 (요셉)
위치 : 건들바위 네거리(무료검정)
☎ **053)474-3050**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흙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곡앤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앞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스피치 토크의 가장 개념잡자!
Speech Kim 스피치킴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 · 취업 면접, 화술 · 화법
대상 :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 검색 김민지(사바나)

행복한 재활 · 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용,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파나)
이 범 수(대건안드레아)
☎ **053)426-6000** (중구 보전소 옆)

JINSUNG Architects & Interior **진 성 건 축**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전원주택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이 종 배(안드레아)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